

완자 공부력

교과서 문해력
교과서가 술술 읽히는 서술어 2B

| 정답과 해설 |

1주 뜻이 다양한 서술어 ①	2
2주 뜻이 다양한 서술어 ②	9
3주 헛갈리는 서술어	16
4주 활동을 안내하는 서술어	23
✓ 실력 확인	30

정답과 해설을
함께 보며 실력을
탄탄하게 다져요.





서술어를 익혀요

본문 13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첫 번째 문장에서 ‘풀리다’는 묶이거나 감긴 것, 합쳐진 것이 그렇지 않게 된다는 뜻으로, 괄호 안에 ‘끈’, ‘밧줄’이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 ‘풀리다’는 일어난 감정 등이 누그러진다는 뜻으로, 괄호 안에는 ‘기분’, ‘오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장에서 ‘풀리다’는 춥던 날씨가 누그러진다는 뜻으로 괄호 안에 ‘날씨’, ‘추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도 TIP 문장의 첫 부분을 살펴보고 문장에서 ‘풀리다’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알 수 있도록 지도해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본문 15쪽

01

상했다

풀렸다

02

3월이 되었는데 꽃샘추위로 추위가 풀리지 않았습니
다. 요즘 바람이 많이 불어 현수막이 날아갈 수 있으니, 현수막 끈이 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03

- ☐ 스웨터의 올이 풀렸어요.
- ☐ 저고리의 고름이 풀렸어요.
- ☒ 시간이 지나자 기분이 풀렸어요.

01 제시된 문장은 놀이공원에 도착하니 기분이 누그러졌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낱말은 ‘풀렸다’가 알맞아요. ‘상하다’는 근심, 슬픔, 노여움 등으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02 ‘현수막 끈이 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에서 ‘풀리다’는 묶이거나 감긴 것, 합쳐진 것이 그렇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03 ‘올이 풀렸어요.’와 ‘고름이 풀렸어요.’에서 ‘풀리다’는 묶이거나 감긴 것, 합쳐진 것이 그렇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기분이 풀렸어요.’에서 ‘풀리다’는 일어난 감정 등이 누그러진다는 뜻이에요.



서술어를 익혀요

분문 17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여름방학 계획을 세웠어요.’와 ‘축구 경기에서 새로운 작전을 세웠어요.’에서 ‘세우다’는 계획이나 해결 방법 등을 정하거나 짚다는 뜻이에요. ‘마을에 양로원을 세웠어요.’와 ‘왕이 나라를 세웠어요.’에서 ‘세우다’는 나라나 기관 등을 처음으로 생기게 한다는 뜻이에요. ‘등산로에 표지판을 세웠어요.’와 ‘들판에 허수아비를 세웠어요.’에서 ‘세우다’는 어떤 물체를 수직으로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도 TIP 제시된 문장을 보고 ‘세우다’의 뜻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해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분문 19쪽

01

어떤 물체를
수직으로 있게 하다.

계획이나 해결 방법
등을 정하거나 짚다.

01 ‘여름 태풍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요.’에서 ‘세우다’는 계획이나 해결 방법 등을 정하거나 짚다는 뜻이에요.

지도 TIP ‘대비책’의 뜻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임을 알려 주세요.

02

짓고

세우고

만들고

02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세우다’는 나라나 기관 등을 처음으로 생기게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세우다’는 계획이나 해결 방법 등을 정하거나 짚다는 뜻이에요.

03



03 휴지 심 4개를 바닥에 세우고 그 위에 책을 얹은 모습을 나타낸 그림은 왼쪽 그림이에요. 오른쪽 그림은 휴지 심과 책이 모두 세워진 모습이에요.



서술어를 익히요

본문 21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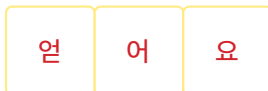
‘우리나라 선수가 승리를 얻었어요.’와 ‘모든 활동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에서 ‘얻다’는 권리나 결과, 재산 등을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이야기를 나누며 지혜를 얻었어요.’와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얻었어요.’에서 ‘얻다’는 구하거나 찾아서 가진다는 뜻이에요.

지도 TIP ‘얻다’의 뜻에 따라 어울리는 낱말을 안내해요. ‘얻다’가 구하거나 찾아서 가진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경험’, ‘지혜’, ‘정보’, ‘지식’, ‘배움’ 등의 낱말과 어울리고, 권리나 결과 재산 등을 차지한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승리’, ‘결과’, ‘점수’, ‘이득’, ‘재산’ 등의 낱말과 어울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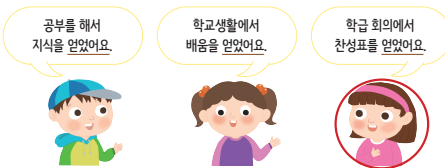
교과서를 이해해요

본문 22~23쪽

01



02



03

1점 과녁에 맞힌 공의 수는 3개이니, $1 \times 3 = 1 \times 3 = 3$ 이고,
2점 과녁에 맞힌 공의 수는 2개이니, $2 \times 2 = 2 \times 2 = 4$ (이)야.
3점 과녁에 맞힌 공의 수는 1개이니, $3 \times 1 = 3 \times 1 = 3$ 이야.
그래서 나는 10점을 얻었어요.

01 ‘얻다’에는 구하거나 찾아서 가진다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밑줄 그은 ‘찾아서 구해요’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은 ‘얻어요’예요.

02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었어요.’와 ‘학교생활에서 배움을 얻었어요.’에서 ‘얻다’는 구하거나 찾아서 가진다는 뜻이에요. ‘학급 회의에서 찬성표를 얻었어요.’에서 ‘얻다’는 권리나 결과, 재산 등을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03 $1 \times 3 = 3$ 이고 $2 \times 2 = 4$ 이며 $3 \times 1 = 3$ 이에요. 따라서 선우는 공을 던져서 10점을 얻었어요.



서술어를 익혀요

본문 25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말줄 그은 낱말과 알맞은 뜻을 선으로 이으세요.

가방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틈새가 벌어졌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갈라져서 사이가 뜬다.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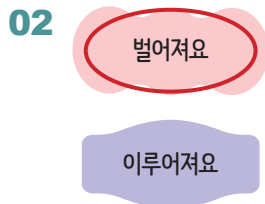
‘가방이 벌어졌어요.’와 ‘틈새가 벌어졌어요.’에서 ‘벌어지다’는 갈라져서 사이가 뜬다는 뜻이에요. ‘싸움이 벌어졌어요.’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에서 ‘벌어지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지도 TIP 제시된 그림과 문장을 함께 보며 ‘벌어지다’의 뜻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해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본문 26~27쪽

01 옛날에 한 소년이 댐에 틀이 생긴 것을 보았어요. 손톱만큼 작았던 틀이 점점 벌어졌어요. 소년은 ‘틀이 더 벌어지면, 댐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소년은 댐이 무너지지 않게 밤새 손바닥으로 틀을 막았어요. 다음 날 사람들은 소년이 댐을 막고 있는 일이 벌어져 있어 매우 놀랐어요.



03

친구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단추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옷 사이가 벌어졌어요.

01 틀이 벌어졌다는 내용에서 ‘벌어지다’는 갈라져서 사이가 뜬다는 뜻이에요.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에서 ‘벌어지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02 첫 번째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벌어지다’는 갈라져서 사이가 뜬다는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벌어지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이루어지다’는 어떤 대상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진다는 뜻과 뜻한 대로 된다는 뜻이 있어요.

03 ‘상처 부위가 벌어질 수 있어요.’와 ‘옷 사이가 벌어졌어요.’에서 ‘벌어지다’는 갈라져서 사이가 뜬다는 뜻이에요. ‘말다툼이 벌어졌어요.’에서 ‘벌어지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서술어를 익히요

본문 29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펼치다’가 접히거나 개킨 것 등을 널찍하게 펴다는 뜻으로 쓰인 문장에는 ‘부채’, ‘우산’, ‘손가락’, ‘돛자리’, ‘날개’ 등이 어울려요. ‘펼치다’가 생각 등을 시작하여 넓히거나 이어간다는 뜻으로 쓰인 문장에는 ‘생각’, ‘의견’, ‘주장’, ‘상상력’, ‘이론’ 등이 어울려요.

지도 TIP ‘펼치다’의 뜻에 따라 어울리는 낱말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해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본문 30~31쪽

01

①

펼쳤어요.

②

펼쳤어요.

02

☐

잠을 자려고 이불을 펼쳤어요.

☐

나들이를 가서 돛자리를 펼쳤어요.

☒

공책에 글을 쓰며 내 생각을 펼쳤어요.

03

접어

펼쳐

01

① [펼쳐써요]는 ‘펼쳤어요’를 소리나는 대로 쓴 것이예요. 따라서 낱말을 올바른 모양으로 고치면 ‘펼쳤어요’예요. ② ‘말했어요’를 생각 등을 시작하여 넓히거나 이어간다는 뜻의 낱말로 고치면 ‘펼쳤어요’예요.

02

‘잠을 자려고 이불을 펼쳤어요.’와 ‘나들이를 가서 돛자리를 펼쳤어요.’에서 ‘펼치다’는 접히거나 개킨 것 등을 널찍하게 펴다는 뜻이예요. ‘공책에 글을 쓰며 내 생각을 펼쳤어요.’에서 ‘펼치다’는 생각 등을 시작하여 넓히거나 이어간다는 뜻이예요.

03

눈이 많이 쌓인 날에 길을 잃으면, 구조 요원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옷을 눈 위에 널찍하게 펴 놓아야 하므로 ‘펼쳐’를 써야 해요. ‘접다’는 천이나 종이 등을 꺾어서 겹친다는 뜻이예요.



독해 Point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할아버지가 부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해하며 글을 읽어요. 이때, 글에서 공부한 낱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살펴보세요.



본문 32쪽

1

옛날에 요술 부채를 가진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빨간 부채를 부치면 코가 늘어나고, 파란 부채를 부치면 코가 줄어들었어요. 할아버지는 부채로 몰래 사람들의 코를 늘였다가 코를 고치는 척하며 명성을 얻었지요.

등장인물

빨간 부채의 특징

파란 부채의 특징

할아버지가 요술 부채로 사람들을 속인 방법

→ 코의 길이를 늘이고 줄일 수 있는 요술 부채를 가진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속여 명성을 얻었어요.

2

어느 날, 할아버지는 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했어요. 빨간 부채로 계속 부채질을 하자 할아버지의 코가 늘어나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 모습을 본 하늘을 다스리는 임금님은 화가 나 기둥을 세우고 코를 묶으라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호기심-사건의 발단

나중에 파란 부채를 부쳤을 때 할아버지의 몸이 떠오른 까닭

→ 빨간 부채를 계속 부치자 할아버지의 코가 하늘까지 닿았고, 그 모습에 화가 난 하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코를 기둥에 묶도록 했어요.

3

코가 아픈 할아버지는 파란 부채를 펼쳤어요. 부채를 부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코가 줄어들며 할아버지가 등실 떠올랐지요. 놀란 할아버지가 버둥거리자 기둥의 줄이 풀렸고, 할아버지는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코를 줄어들게 하려는 목적

자신이 가진 물건을 함부로 사용해 벌을 받음.

→ 할아버지가 파란 부채를 부쳤지만, 코가 기둥에 묶여 있어 할아버지의 몸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가 버둥거리자 기둥의 줄이 풀려 할아버지는 땅으로 떨어졌어요.



오늘 아이의 학습을
평가해 보세요.

공부한 서술어를 잘 이해했나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나요?



이야기를 이해해요

본문 33쪽

- 01 ① ☐ ☐ ☐
- ② ☐ ☐ ☐
- ③ ☐ ☐ ☐

02 ②

03 현우

01 ② 할아버지는 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했어요. ③ 할아버지는 늘어난 코가 아프자 코를 줄여
들게 하는 파란 부채를 펼쳐서 부쳤어요.

02 ㉠과 ㉡ 문장에서 '벌어지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
거나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 ㉢ 문장에서 '벌어
지다'는 갈라져서 사이가 뜬다는 뜻이에요.

03 할아버지는 자기가 가진 요술 부채로 사람들을 속
이고, 요술 부채를 마음 내키는 대로 사용해서 큰
일을 당했어요.





서술어를 익히요

분문 37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이 같은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항아리가 깊어요.’와 ‘산골짜기가 깊어요.’에서 ‘깊다’는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뜻이에요. ‘우리 언니는 생각이 깊어요.’와 ‘내 친구는 조심성이 많고 주의가 깊어요.’에서 ‘깊다’는 생각이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다는 뜻이에요. ‘부모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요.’와 ‘그 노래는 나에게 의미가 깊어요.’에서 ‘깊다’는 수준이 높거나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에요.

지도 TIP ‘깊다’가 위에서 밑바닥까지의 거리뿐만 아니라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를 나타낼 때도 쓰인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분문 39쪽

01

깊어요

넓어요

02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멀다.수준이 높거나 정도가
심하다.

03



하린이는 차분하고 생각이 깊어요.



연우는 배려심이 많고 속이 깊어요.



윤서는 동물에 대한 애정이 깊어요.

01 빈칸에 똑같이 들어갈 낱말은 ‘깊어요’예요. 이때, ‘깊다’는 수준이 높거나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에요. ‘넓다’는 너비가 크다는 뜻과 마음 쓰는 것이 크고 너그럽다는 뜻이 있어요.

02 ‘동굴 안은 어둡고 깊었어요.’에서 ‘깊다’는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뜻이에요. 이때, 거리는 동굴 입구에서 안쪽 끝까지의 거리예요.

03 ‘하린이는 차분하고 생각이 깊어요.’와 ‘연우는 배려심이 많고 속이 깊어요.’에서 ‘깊다’는 생각이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다는 뜻이에요. ‘윤서는 동물에 대한 애정이 깊어요.’에서 ‘깊다’는 수준이 높거나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에요.



서술어를 익히요

본문 41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말줄 그은 낱말이 말풍선에 적힌 뜻으로 쓰인 문장에 ○표를 하세요.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

책에서 의미가 드러나다.

비가 온 뒤에 해가 드러나다.

수풀에 가려져 있던 길이 드러나다.

그림에서 화가의 생각이 드러나다.

겉에 나타나 있거나 눈에 띄다.

‘책에서 의미가 드러나다’와 ‘그림에서 화가의 생각이 드러나다’에서 ‘드러나다’는 겉에 나타나 있거나 눈에 띄다는 뜻이에요. ‘비가 온 뒤에 해가 드러나다.’와 ‘수풀에 가려져 있던 길이 드러나다’에서 ‘드러나다’는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도 TIP 제시된 문장을 보며 ‘드러나다’의 뜻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해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본문 42~43쪽

- 01** 겉에 나타나 있거나 눈에 띄다.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
- 02** ☐ 시에는 글쓴이의 마음이 드러나요.
☒ 파도가 지나간 뒤에 깨끗한 모래사장이 드러났어요.
☐ 칭찬할 때에는 칭찬할 점과 그 까닭이 드러나게 말해요.
- 03** 가을에는 학교에서 운동회를 해요. 함께 응원하는 친구들의 얼굴에 신나는 표정이 드러나요.
가을에는 밤나무에서 밤을 따요. 밤은 가시가 돋친 껍질 속에 있어요. 껍질을 까면 열매가 드러나요.
가을에 산에서 풀을 수확해요. 꿀통에서 꿀을 꺼낼 때 벌에게 쏘일 수 있어, 피부가 드러나지 않는 특별한 옷을 입어요.
- 겉에 나타나 있거나 눈에 띄다.
-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

01 ‘알맹이가 드러나요.’에서 ‘드러나다’는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02 ‘깨끗한 모래사장이 드러났어요.’에서 ‘드러나다’는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글쓴이의 마음이 드러나요.’와 ‘그 까닭이 드러나야 해요.’에서 ‘드러나다’는 겉에 나타나 있거나 눈에 띄다는 뜻이에요.

03 ‘얼굴에 신나는 표정이 드러나요.’에서 ‘드러나다’는 겉에 나타나 있거나 눈에 띄다는 뜻이에요. ‘껍질을 까면 열매가 드러나요.’와 ‘피부가 드러나지 않는 특별한 옷을 입어요.’에서 ‘드러나다’는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서술어를 익혀요

분문 45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줄을 넘었다.’, ‘웅덩이를 훌쩍 넘었다.’, ‘선수가 장애물을 뛰어 넘었다.’에서 ‘넘다’는 일정한 공간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으로 뛴다는 뜻이에요. ‘10시가 넘었다.’, ‘지원자가 100명이 넘었다.’, ‘반납일이 일주일이나 넘었다.’에서 ‘넘다’는 일정한 시간, 범위 등에서 벗어나 지난다는 뜻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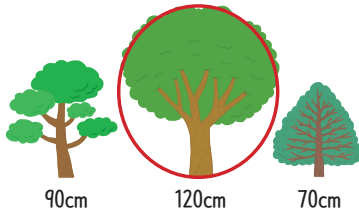
지도 TIP ‘넘다’ 앞에 오는 낱말이 뛰어 넘는 사물인지, 일정한 시간이나 범위인지를 살펴보고 ‘넘다’의 뜻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해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분문 46~47쪽

- 01** 토요일에 가족들과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도착하기로 한 시각은 10시였는데, 실제로 동물원에 도착한 시각은 10시 30분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한 도착 예정 시각에서 20 30 40 분이 남았어요. 남았어요. 넘었어요.

02



03

- ☒ 컴퓨터실에서, 전선을 넘거나 세계 담기지 않아요.
- ☒ 체육관에서, 운동 기구 사이를 넘어 다니지 않아요.
- ☒ 강당에서, 바닥에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밟거나 넘지 않아요.
- ☐ 시청각실에서, 이용 시간이 넘을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해요.

- 01** 동물원에 도착하기로 한 시각은 10시였는데, 실제로 도착한 시각은 10시 30분이예요. 따라서 실제로 도착한 시각은 예정 시각에서 30분이 넘었어요. ‘남다’는 다 쓰지 않거나 정해진 수준에 이르지 않거나 나머지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 02** 1m는 100cm이므로, 1m가 넘는 나무는 높이가 120cm인 가운데 나무예요.

지도 TIP 높이가 120cm인 나무는 1m에서 20cm가 넘는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 03** ‘넘다’가 일정한 공간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으로 뛴다는 뜻으로 쓰인 문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에요. 네 번째 문장에서 ‘넘다’는 일정한 시간, 범위 등에서 벗어나 지난다는 뜻이에요.



서술어를 익혀요

본문 49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적힌 보석을 골라 번호를 쓰세요.

()이/가 고르다.
여럿이 모두 높낮이, 크기, 양 등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을/를 고르다.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는다.

‘고르다’가 여럿이 모두 높낮이, 크기, 양 등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는 뜻으로 쓰인 문장에는 ‘운동장 바닥’, ‘아기의 숨소리’, ‘선수들의 실력’이 어울려요. ‘고르다’가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는다는 뜻으로 쓰인 문장에는 ‘재미있는 책’, ‘맛있는 과자’, ‘사야 할 물건’이 어울려요.

지도 TIP 제시된 문장을 여러 번 읽어보며 ‘고르다’의 뜻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해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본문 50~51쪽

01

고	름	니	다
---	---	---	---

01 ‘고르다’에는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는다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밑줄 그은 내용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은 ‘고릅니다.’예요.

02

☐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다.

☒ 여럿이 모두 높낮이, 크기, 양 등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02 제시된 내용은 농사지를 비가 필요하지만, 해마다 내리는 비의 양에 차이가 있고 한결같지 않다는 것이예요. 따라서 문장에서 쓰인 ‘고르다’는 여럿이 모두 높낮이, 크기, 양 등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는 뜻이예요.

03

윤서 나는 내 동생의 옷을 모수를 좋아해. 내 동생은 치아가 골라서 옷은 모수가 무척 예뻐.

지민 나는 뷔페 가는 것을 좋아해.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 있거든.

도윤 나는 여름방학이 좋아. 방학 때 내가 좋아하는 곳을 골라서 그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거든.

수민 나는 겨울에 썰매 타는 것을 좋아해. 얼음 바닥이 고르면, 썰매를 타고 썰썰 달릴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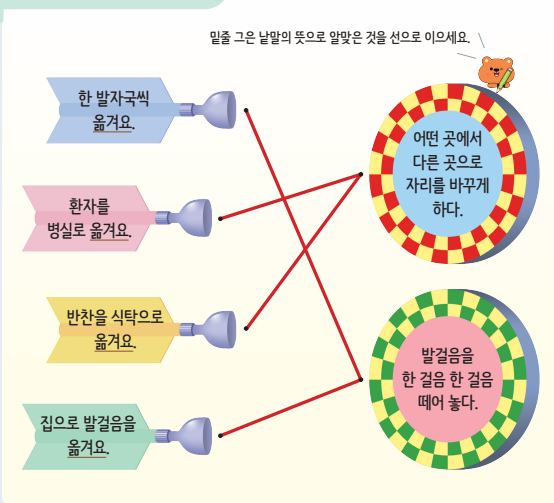
03 ‘치아가 고르다.’와 ‘얼음 바닥이 고르다’에서 ‘고르다’는 여럿이 모두 높낮이, 크기, 양 등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는 뜻이예요. ‘좋아하는 곳을 고르다.’와 ‘음식을 고르다.’에서 ‘고르다’는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는다는 뜻이예요.



서술어를 익혀요

분문 53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한 발자국씩 옮겨요.’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요.’에서 ‘옮기다’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환자를 병실로 옮겨요.’와 ‘반찬을 식탁으로 옮겨요.’에서 ‘옮기다’는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도 TIP ‘옮기다’가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는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주로 발이나 걸음을 표현하는 낱말과 함께 쓰인다는 점을 알려 주세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분문 54~55쪽

01

바꿔요

옮겨요

채워요

02

모둠에서 친구들과 고무줄로 컵을 옮기는 놀이를 해요. 4명이 고무줄을 한 줄씩 잡고, 줄로 컵을 집어 책상까지 옮겨요. 이때, 친구들이 동시에 걸음을 옮겨야 해요. 책상을 옮겨서 거리를 더 멀게 할 수도 있어요.

03

- 하나, 눈을 치우는 도구를 눈에 띄는 곳으로 옮겨요. 2
- 둘, 한쪽으로 치워둔 눈을 마음대로 옮기지 않아요. 2
- 셋, 밖에서 기르는 소나 말 등의 가축을 실내로 옮겨요. 2
- 넷, 병판길에서는 걸음을 천천히 옮기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아요. 1

01 밑줄 그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게 해요’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은 ‘옮겨요’예요. ‘바꾸다’는 원래 있던 것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거나 대신하게 한다는 뜻이고, ‘채우다’는 일정한 공간에 사람, 사물, 냄새 등을 가득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02 ‘걸음을 옮겨야 해요.’에서 ‘옮기다’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책상까지 옮겨요.’와 ‘책상을 옮겨서’에서 ‘옮기다’는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게 한다는 뜻이에요.

03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에서 ‘옮기다’는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게 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문장에서 ‘옮기다’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독해 Point 이 이야기는 조선 시대 황희 정승이 겪은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글을 읽으며 농부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공부한 낱말이 글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해 보세요.



본문 56쪽

1

옛날에 한 선비가 누령소와 검정소로 밭을 가는 농부를 보고 물었어요. “밭이 참 고롭니다. 소들이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나요?”

등장인물

등장인물

선비의 질문-사건의 발단

농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선비에게로 걸음을 옮겼어요.

→ 한 선비가 누령소와 검정소로 밭을 가는 농부를 보고,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는지 물었어요.

2

농부는 선비에게 긋속말로 대답했어요. “한 마리를 고른다면, 누령소입니다. 일할 나이가 넘었지만, 아주 성실합니다.” 선비는 농부에게 “그 말을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지요.

대답을 조심스럽게 하는 행동

일을 더 잘하는 소

농부가 일을 더 잘하는 소로 누령소를 고른 까닭

→ 농부는 선비에게 다가가 긋속말로 누령소가 일을 더 잘한다고 대답했어요. 선비는 농부에게 대답을 조심스럽게 하는 까닭을 물었어요.

3

농부는 “소들 앞에서 내 마음이 드러나면, 검정소가 기분 나빠할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선비는 ‘농부가 참으로 생각이 깊구나. 나도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겠어.’라고 생각했어요.

농부가 선비에게 긋속말을 한 까닭

선비가 농부를 통해 깨달은 점

→ 농부는 소들 앞에서 자기 마음이 드러나면, 검정소가 기분이 나쁠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선비는 농부의 말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오늘 아이의 학습을
평가해 보세요.

공부한 서술어를 잘 이해했나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나요?



이야기를 이해해요

분문 57쪽

- 01 ① ☐ ☒ ☐
- ② ☒ ☐ ☐
- ③ ☐ ☐ ☒

02 ②

03 ③

01 ① 선비는 농부의 밭을 보고 밭이 고르다고 말했어요. ③ 농부는 일을 더 잘하는 소로 누렁소를 골랐어요.

02 ①과 ② 문장에서 '넘다'는 일정한 시간, 범위 등에서 벗어나 지난다는 뜻이에요. ①, ③ 문장에서 '넘다'는 일정한 공간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으로 뚫다는 뜻이에요.

03 선비는 농부가 소들 앞에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술어를 익혀요

본문 61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낱말 카드에서 골라 쓰세요.



가리키다 가르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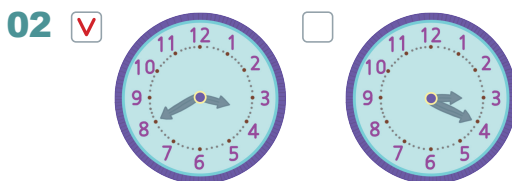
첫 번째 그림은 컴퓨터를 다루는 방법을 익히게 하고 있고, 네 번째 그림은 세배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낱말은 '가르치다'가 알맞아요. 두 번째 그림은 친구가 손가락으로 학교를 가리키고 있고, 세 번째 그림은 표지판이 길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낱말은 '가리키다'가 알맞아요.

지도 TIP 그림을 보고 '가르치다'와 '가리키다'의 뜻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본문 62~63쪽

- 01** 시계의 짧은바늘은 1과 2 사이를, 긴바늘은 5를 가리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은 1 5 시 15 25 분입니다.



- 03** 오전에는 교통 표지판에 대해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교통 표지판을 하나씩 가리키며 가르치며 그 의미를 가리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체험용 도로를 구경했습니다. 도로에는 화살표 모양이 많았습니다. 나는 화살표를 가리키며 가르치며 화살표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고, 선생님은 친절하게 가리켜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로의 화살표는 자동차가 움직여야 할 방향을 가리켜서 가르쳐서 자동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합니다.

- 01** 시계의 짧은바늘은 1과 2 사이를, 긴바늘은 5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시각은 1시 25분이에요.

- 02** 시각이 3시 40분이면 짧은바늘은 3과 4 사이를, 긴바늘은 8을 가리켜야 해요. 두 번째 시계는 짧은바늘은 3과 4 사이를, 긴바늘은 4를 가리키고 있어 시각이 3시 20분이에요.

- 03** 두 번째 문장에서 선생님이 교통 표지판을 가리키며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는 내용이 알맞아요. 다섯 번째 문장에서 나는 화살표를 가리키며 질문을 했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내용이 알맞아요. 마지막 문장에서는 화살표가 방향을 가리킨다는 내용이 알맞아요.



서술어를 익히요

본문 65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골라 ○표를 하세요.

나와 동생은 성격이 ().

답을 많이 () 숙상해.

동네의 모습이 예전과 ().

받아쓰기에서 맞춤법을 ().

다르다 틀리다 달라서 틀려서

달라졌어요 틀려졌어요

달랐어요 틀렸어요

첫 번째 문장은 나와 동생의 성격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고, 세 번째 문장은 동네의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뜻이므로 '다르다'를 써야 해요. 두 번째 문장은 답이 정답에 맞지 않다는 뜻이고, 네 번째 문장은 받아쓰기한 것이 맞춤법에 맞지 않다는 뜻이므로 '틀리다'를 써야 해요.

지도 TIP 두 낱말의 반대말을 활용해 뜻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해요.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이고,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예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본문 66~67쪽

01

①

㉠

달랐어요

②

㉠

달라요

③

㉡

틀려서

02

✓

달라요

□

틀려요

03

①



②



01 ① ㉠이 들어간 문장은 친구가 쓴 답과 내가 쓴 답이 서로 같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달랐어요'로 고쳐야 해요. ② ㉠이 들어간 문장은 사람마다 느끼는 감상이 같지 않다는 뜻이므로 '달라요'로 고쳐야 해요. ③ ㉡이 들어간 문장은 봉투에 쓴 주소가 원래 주소와 맞지 않다는 뜻이므로 '틀려서'로 고쳐야 해요.

02 3학년 교실이 있는 층과 2학년 교실이 있는 층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므로 '다르다'를 써야 해요.

03 ① 나와 친구의 기억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므로 '다르다'를 써야 해요. 따라서 '나와 친구의 기억이 서로 달라요.'가 올바른 문장이예요.



서술어를 익혀요

본문 69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문장의 내용을 보면 문장에 알맞은 글자를 알 수 있어요. '독립운동가를 존경해요.', '나와 다른 생각을 존경해요.', '동생의 의견을 존경해요.', '다른 나라의 전통을 존경해요.', '나는 가족 중에서 할머니를 가장 존경해요.'가 알맞아요.

지도 TIP '존중하다'와 '존경하다'를 특정 인물을 나타내는 낱말과 함께 쓸 때 그 의미가 달라지는 점을 이해하도록 안내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을 존중한다.'는 선생님을 높이어 귀하게 대한다는 뜻이고,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선생님의 인격, 생각, 행동 등을 받들어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본문 70~71쪽

01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02

- 1 존중해서 존경해서
- 2 존중해야 존경해야

03

- 1 세종대왕은 자기를 반대하는 신하들의 의견도 (존중했어요) 존경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세종대왕을 (존중했어요, 존경했어요).
- 2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를 (존중해요, 존경해요). 그 선수는 축구도 잘하고 다른 선수를 (존중하며, 존경하며) 경기해요.

01 첫 번째 문장은 친구의 의견을 귀중하게 대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은 친구의 생각을 귀중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빈칸에 똑같이 어울리는 낱말은 '존중합니다'예요.

02 '강감찬 장군을 존경하다.'와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다.'가 알맞아요.

03 ① 제시된 내용은 세종대왕은 자기를 반대하는 신하들의 의견도 귀중하게 대해서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세종대왕을 받들어 공경했다는 뜻이에요. ② 제시된 내용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 선수를 존경하는데, 그 선수는 다른 선수를 귀중하게 대하며 경기한다는 뜻이에요.



서술어를 익혀요

분문 73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첫 번째 문장은 에디슨이 전구라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냈다는 뜻이고, 네 번째 문장은 새로운 우주선을 만들고 싶다는 뜻이므로 '발명하다'가 알맞아요. 두 번째 문장은 숨겨져 있던 상자를 찾아냈다는 뜻이고, 세 번째 문장은 알려지지 않은 곤충을 찾아냈다는 뜻이므로 '발견하다'가 알맞아요.

지도 TIP '발견하다'와 '발명하다'의 뜻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분문 74~75쪽

01 (발견하면) 발명하면)

02

동보기로 복숭아의 보고, 껍질에 있는 털을 신기했어요.

발견해서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요. 사람들이 에어컨을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요.

발명해서

03 ① ☒ 발견했어요.☐ 발명했어요.② ☒ 발견했어요.☐ 발명했어요.③ ☐ 발견했어요.☒ 발명했어요.

01 원래부터 있던 동물을 찾아낸 것이므로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은 '발견하면'이에요.

02 복숭아 껍질에 원래부터 있는 털을 찾아낸 것이므로 '발견하다'를 써야 하고, 원래는 없던 에어컨을 새롭게 만든 것이므로 '발명하다'를 써야 해요.

03 ① 원래부터 있는 오리발의 물갈퀴를 찾아낸 것이므로 '발견하다'가 알맞아요. ② 물갈퀴가 있으면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므로 '발견하다'가 알맞아요. ③ 물갈퀴의 모양을 활용해 '오리발'이라는 새로운 물건을 만든 것이므로 '발명하다'가 알맞아요.



독해 Point

이 글은 지혜로운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글을 읽으며 솔로몬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해하고, 공부한 낱말의 뜻을 파악해 보도록 해요.



본문 80쪽

1

옛날에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왕이 살았어요. 어느 날, 솔로몬은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다투는 것을 발견했어요. 솔로몬이 그 까닭을 묻자, 두 여인은 서로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했어요.

등장인물

등장인물

두 여인이 다투는 까닭

→ 지혜로운 솔로몬은 한 아기를 두고 다투는 두 여인을 보고, 그 까닭을 물었어요. 두 여인은 서로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했어요.

2

솔로몬은 아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두 사람의 주장이 다르구나. 그렇다면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라.” 그 말을 들은 신하가 칼을 잡자, 한 여인이 놀란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고, 아기를 살려 주세요.”

다른 여인은 “저 여인의 말대로 어서 아기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했지요.

아기의 진짜 엄마인 여인의 반응

거짓말을 한 여인의 반응

→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고 말하자, 한 여인이 울면서 아기를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말했어요.

3

솔로몬은 울고 있는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다른 여인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이 일로 사람들은 솔로몬을 더욱 존경했어요.

솔로몬의 판단-진짜 엄마는 아기를 다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

지혜로운 판단으로 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은 일

→ 솔로몬은 울고 있는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솔로몬을 더욱 존경했어요.



오늘 아이의 학습을
평가해 보세요.

공부한 서술어를 잘 이해했나요?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나요?



이야기를 이해해요

본문 81쪽

01 ①

02 ① 달랐어요 틀렸어요

② 가리키며 가르치며

③ 존경했어요 존중했어요

03



01 ② 솔로몬은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③ 솔로몬은 두 여인의 주장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02 ① 두 여인은 서로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했어요. ② 솔로몬은 아기를 가리키며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고 말했어요. ③ 사람들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솔로몬을 더욱 존경했어요.

03 울고 있는 여인은 아기를 반으로 자르면, 아기가 다치리라 생각해 아기를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은 진짜 엄마는 아기를 다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예요.



낱말의 첫 자음자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오늘 아이의 학습을 평가해 보세요.

공부한 서술어를 잘 이해했나요?

부족함

보통

잘함



서술어를 익히요

분문 85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길을 따라가며 만나는 낱말을 빈칸에 순서대로
써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길을 따라가며 만나는 낱말을 순서대로 빈칸에 쓰면 문장을 완성할 수 있어요. 문장을 완성하면, '구슬을 세서 개수를 확인해요.', '시간표를 꼼꼼하게 확인해요.', '수영장의 안전 수칙을 확인해요.'예요.

지도 TIP 문장을 보고 '확인하다' 앞에는 확인해야 할 내용이 나온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분문 87쪽

01

확 인 해 요

02

확인해

03

생각해요

확인해요

01 글자를 순서에 맞게 써넣어 문장을 완성하면 '친구가 바른 말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요.'예요.

02 제시된 문장은 책장의 짧은 쪽 길이를 1m로 어렵하였는데, 실제로 자로 재어 그러한지 알아보니 길이가 1m 20cm라는 뜻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낱말로 '확인해'가 알맞아요.

지도 TIP '어렵하다'는 대강 짐작으로 헤아린다는 뜻을 알려 주세요.

03 심폐 소생술을 하기 전에 먼저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쓸 때는 사용법을 꼭 알아봐야 해요. 따라서 빈칸에 똑같이 들어갈 낱말은 '확인해요'예요.



서술어를 익혀요

본문 89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넣어 문장을 완성하면 '우리 반의 규칙을 정했어요.', '친구와 놀이 방법을 정했어요.', '수업에서 발표 순서를 정했어요.'예요.

지도 TIP 문장을 완성하며 '정하다'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본문 91쪽

01

모양 색깔

정해요

비교해요

01 그림 속 과자의 색이 모두 같기 때문에 색깔은 분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지도 TIP 과자를 분류하는 기준을 모양으로 정하고 기준에 따라 과자를 분류해 보는 활동을 추가로 할 수 있어요.

02

규칙이나 법 등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다.

여럿 가운데 선택하거나 판단하여 결정하다.

02 '한 가지 기준을 정해서 교실 물건들을 나뉘요.'에서 '정하다'는 규칙이나 법 등의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03

정

했

어

요

03 밑줄 그은 '적용할 범위를 결정했어요'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은 '정했어요'예요.



서술어를 익혀요

분문 93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의 번호를 써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1 아빠 2 친구 3 학생들 4 일 5 방법 6 그림

(2)에게 (6)의 내용을 설명해요.

(1)께 내가 겪은 (4)을 설명해요.

(3)에게 일기 쓰는 (5)을 설명해요.

첫 번째 그림은 친구에게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 그림은 아빠께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일기 쓰는 방법을 설명하는 모습이에요.

지도 TIP 제시된 문장을 활용해 ‘설명하다’ 앞에 설명해야 하는 대상이나 내용이 나온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분문 94~95쪽

01

물을 담아 보관해요.
따뜻한 물을 담아두면,
잘 식지 않아서 언제든지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V

동근 기둥 모양이에요.
몸통은 보라색이고
주황색 무늬가 있어요.
몸통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02

설명해요

질문해요

03

①

살펴봐요

설명해요

②

설명하면

알아보면

01 제시된 활동은 보온병의 겉모양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두 번째 친구의 대답이 알맞아요. 첫 번째 친구는 보온병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어요.

02 밑줄 그은 내용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은 ‘설명해요’예요. ‘질문하다’는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다는 뜻이에요.

03 ① 제시된 문장은 놀이 방법을 밝혀 말한다는 뜻이므로 ‘설명하다’가 알맞아요. ‘살펴보다’는 무엇을 찾거나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② 제시된 문장은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 밝혀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설명하다’가 알맞아요. ‘알아보다’는 무엇을 조사하거나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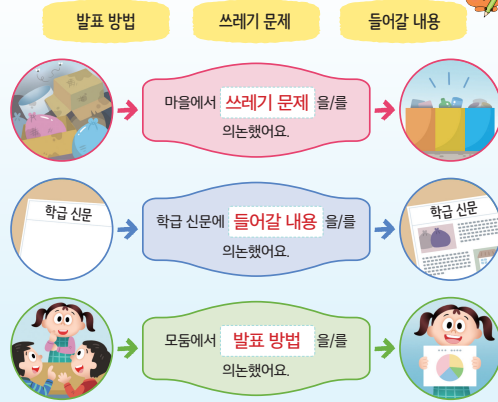


서술어를 익혀요

본문 97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그림을 보고,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골라 쓰세요.



왼쪽 그림은 의논하기 전의 모습을, 오른쪽 그림은 의논하고 난 뒤에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를 보고 문장을 완성하면 '마을에서 쓰레기 문제를 의논했어요.', '학급 신문에 들어갈 내용을 의논했어요.', '모둠에서 발표 방법을 의논했어요.'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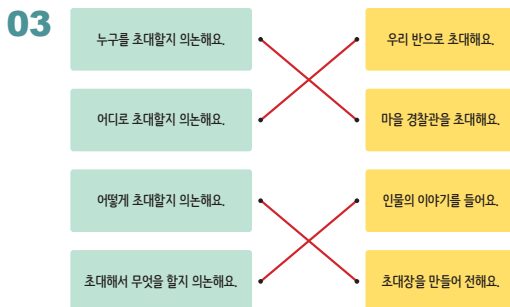
지도 TIP '의논하다'와 뜻이 비슷한 말에는 '논의하다'가 있어요. '논의하다'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한다는 뜻을 알려 주세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본문 98~99쪽

01 의 논 해 요

- 02** ☐ 모둠에서 매체를 직접 사용해 보고, 느낀 점을 주고받아요.
☒ 모둠에서 매체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아요.



01 글자를 순서에 맞게 써넣어 문장을 완성하면 '친구들과 쓰고 싶은 글의 주제를 의논해요.'예요.

02 제시된 내용은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의논하는 활동이므로, 매체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행동이 알맞아요.

03 '의논하다' 앞에 있는 내용으로 의논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를 초대할지 의논한 것의 알맞은 결정은 마을 경찰관을 초대하는 것이예요. 어디로 초대할지와 어떻게 초대할지 의논한 것의 알맞은 결정은 각각 우리 반으로 초대하는 것과 초대장을 만들어 전하는 것이예요. 초대해서 무엇을 할지 의논한 것의 알맞은 결정은 인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예요.



서술어를 익히요

본문 101쪽

재미있게 연습하기

그림을 보고, 카드에 적힌 낱말을 빈칸에
써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구름의 관찰해요. 움직임을

구름의 움직임을 관찰해요.

관찰해요. 자라는 모습을 식물이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해요.

첫 번째 그림은 구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 그림은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구름의 움직임을 관찰해요.'와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해요.'가 맞아요.

지도 TIP '관찰하다'의 뜻을 생각하며 낱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해요.

교과서를 이해해요

본문 102~103쪽

01 ☐ 감상해요 ☒ 관찰해요 ☐ 상상해요02 성격 행동
관찰했어요 짐작했어요

03 겉모습을 관찰하니, (① , ③)

속 모습을 관찰하니, (② , ④)

01 '관찰하다'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밑줄 그은 내용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은 '관찰해요'예요. '감상하다'는 예술 작품 등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02 제시된 내용은 공중화장실에서 세면대가 높아서 손을 씻기 어려운 어린이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봤다는 뜻이에요. '짐작하다'는 사정이나 형편 등을 어림잡아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03 사과의 겉모습은 껍질이 매끄럽고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사과의 속 모습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고 가운데에 검은색 씨가 있어요.



독해 Point 이 글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생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일에 실패한 원인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 보세요. 이때, 글에서 공부한 낱말을 찾아보며 그 뜻을 이해해 보세요.



본문 104쪽

1

생쥐들이 사는 마을에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생쥐들은 며칠 동안 고양이의

고양이의 출현-사건의 발단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생쥐를 해친다는 것을 확인했지요.

생쥐들이 고양이를 피해야 하는 까닭

→ 생쥐들은 마을에 나타난 고양이를 관찰해서 고양이가 생쥐를 해치는 고양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2

생쥐들은 고양이를 피할 방법을 의논했어요. 너도나도 한 마디씩 하기 시작

했어요. “지난번에 회의 규칙을 정했으니까, 규칙대로 돌아가며 이야기하자.”

한 생쥐가 자기가 생각한 방법을 설명했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고양이가

고양이를 피하고자 생각한 방법

을 때마다 소리가 나서 피할 수 있어.” 생쥐들은 모두 이 생각에 찬성했어요.

→ 생쥐들은 고양이를 피할 방법을 의논했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생각에 모두 찬성했어요.

3

뒤이어 한 생쥐가 말했어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래?” 그러나 누구도

고양이가 생쥐를 해치는 무서운 고양이라서 생쥐들이 나서지 않음.

나서지 않았어요. 결국 생쥐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고, 예전처럼

고양이를 피해 숨어서 지내야 했어요.

좋은 방법을 생각했지만 실천하지 않아서 이전과 같이 숨어서 지내게 됨.

→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일을 할 생쥐가 아무도 없었어요.





실력 확인



1회

○ 맞힌 개수

/ 15개

본문 106~107쪽

- 1 연다 2 짚다 3 확인하다
4 옮겼다 5 풀렸다 6 세웠다
7 ㉠ 8 달라요 9 존중해요
10 가리켜요 11 ㉠ 발견했다 ㉡ 설명했다
12 ㉠-㉠ ㉡-㉡
13 ㉠ 깊다 ㉡ 드러나다 ㉢ 집다
14 예시 답안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고르다.
15 예시 답안 비가 와서 우산을 펼치다.

- 1 '넘다'는 일정한 시간, 범위 등에서 벗어나 지난다는 뜻과 일정한 공간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으로 된다는 뜻이 있어요.
- 2 '집다'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기구 등으로 물건을 잡아서 든다는 뜻이에요.
- 3 '의논하다'는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는 뜻이에요.
- 4 제시된 문장에서 '옮기다'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 5 제시된 문장에서 '풀리다'는 춥던 날씨가 누그러진다는 뜻이에요.
- 6 제시된 문장에서 '세우다'는 계획이나 해결 방법 등을 정하거나 짚는다는 뜻이에요.
- 7 ㉠, ㉢ 문장에서 '벌어지다'는 갈라져서 사이가 뜬다는 뜻이에요. ㉡ 문장에서 '벌어지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 8 나와 친구의 등교 시간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므로 '다르다'를 써야 해요.
- 9 내 생각과 다른 친구의 생각을 귀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존중하다'를 써야 해요.
- 10 친구를 손바닥으로 집어서 보인다는 뜻이므로 '가리키다'를 써야 해요.
- 11 ㉠ '발견하다'는 찾아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 '설명하다'는 어떤 일이나 내용을 다른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한다는 뜻이에요.

- 12 '정하다'는 규칙이나 법 등의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는 뜻이고, '관찰하다'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반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하다.'와 '새싹의 모습을 돋보기로 관찰하다.'가 맞아요.

- 13 ㉠ 생각이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다는 뜻이므로 '깊다'를 써요. ㉡ 생각이 글에 나타나 있거나 눈에 띈다는 뜻이므로 '드러나다'를 써요. ㉢ 떨어진 연필을 잡아서 든다는 뜻이므로 '집다'를 써요.

14

채점 기준

잘했어요

'고르다'의 뜻을 알고, 뜻이 잘 드러나도록 문장을 썼어요.

다시 공부해요

'고르다'만 따라 썼어요.

15

채점 기준

잘했어요

'펼치다'의 뜻을 알고, 뜻이 잘 드러나도록 문장을 썼어요.

다시 공부해요

'펼치다'만 따라 썼어요.



2회

○ 맞힌 개수

/ 157개

본문 108 ~ 109쪽

- 1 존중하다 2 의논하다 3 존경하다
 4 펼쳐요 5 드러나요 6 가르쳐요
 7 ① 8 넘지 9 짚고
 10 발명하여 11 ①-㉠ ②-㉡
 12 깊어요
 13 가로 ① 다르다
 세로 ① 얻다 세로 ② 정하다
 14 예시 답안 역할극에서 대사를 틀리다.
 15 예시 답안 모르는 내용을 책에서 확인하다.

- 1 '존중하다'는 높이어 귀중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2 '의논하다'는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는 뜻이에요.
 3 '존경하다'는 다른 사람의 인격, 생각, 행동 등을 받들어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4 내 생각을 글로 마음껏 넓히거나 이어간다는 뜻이므로 '펼치다'를 써야 해요.
 5 크게 웃어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치아가 보이게 된다는 뜻이므로 '드러나다'를 써야 해요.
 6 학생에게 한자 쓰는 방법을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한다는 뜻이므로 '가르치다'를 써야 해요.
 7 ① 문장에서 '고르다'는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는다는 뜻이에요. ②, ③ 문장에서 '고르다'는 여럿이 모두 높낮이, 크기, 양 등의 차이가 없이 한결 같다는 뜻이에요.
 8 물웅덩이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으로 뛴다는 뜻이므로 '넘다'를 써야 해요.

9 땀들의 윗부분에 손바닥을 대고 몸을 의지한다는 뜻이므로 '짚다'를 써야 해요.

10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뜻이므로 '발명하다'를 써야 해요.

11 '옮기다'는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게 한다는 뜻이고, '폴리다'는 일어난 감정 등이 누그러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대화를 하면 오해가 풀려요.'와 '무거운 상자를 함께 들어 옮겨요.'가 알맞아요.

12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깊다'는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뜻이고,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깊다'는 수준이 높거나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깊다'는 생각이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다는 뜻이에요.

13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얻다'는 구하거나 찾아서 가진다는 뜻이고 '정하다'는 규칙이나 법 등의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야기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인터넷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다.', '우리 반의 안전 규칙을 정하다.'가 알맞아요.

14

채점 기준

😊 잘했어요 '틀리다'의 뜻을 알고, 뜻이 잘 드러나도록 문장을 썼어요.

😞 다시 공부해요 '틀리다'만 따라 썼어요.

15

채점 기준

😊 잘했어요 '확인하다'의 뜻을 알고, 뜻이 잘 드러나도록 문장을 썼어요.

😞 다시 공부해요 '확인하다'만 따라 썼어요.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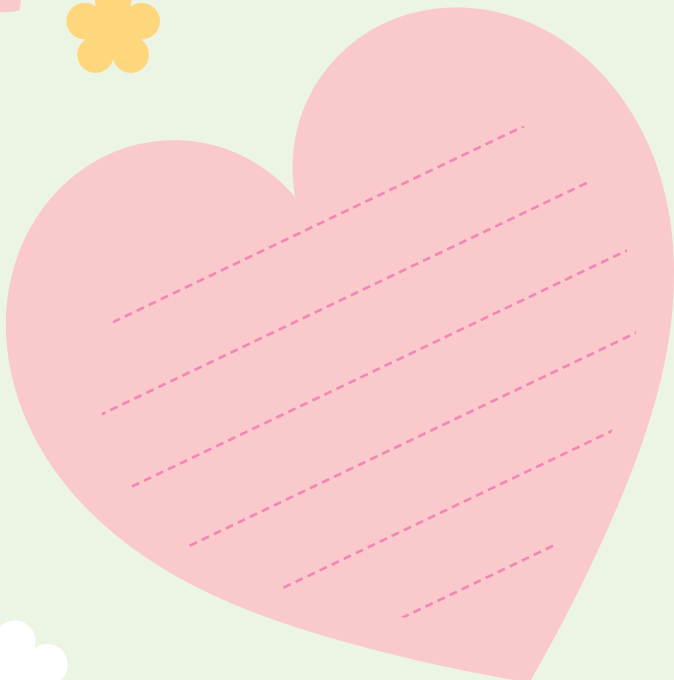
A blue bunny-shaped memo template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yellow cloud-shaped memo template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purple cat-shaped memo template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pink heart-shaped memo template with diagonal dashed lines for writing.

